신안장산초, 다양한 보드게임 활용 '수학과 친해지는 날' 운영

작년 이어 올해도 운영, 2학기도 전교생 대상 실시 예정 수학이 두려운 대상 아닌 재미·친숙함 느끼기 위해 마련

신안군 장산초등학교는 지난 14일 전교생 을 대상으로 수학과 친해지는 날을 실시하였

장산초등학교는 수학과 친해지는 날을 작 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을 하였는데, 수학과 친해지는 날에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교과 인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보드게임을 활용하였다. 1~2학년 학생들은 도형과 관련된 보드게임인 브레인세트와 펜 토미노를 3~4학년 학생들은 연산능력과 관

련된 보드게임인 긴급계산 119, 다이스 구구 를 통해 수학을 재미있게 접하는 시간을 가 졌다. 또한, 5~6학년 학생들은 문제해결능력 과 관련된 보드게임인 다빈치코드, 블로커스 를 통해 즐거운 문제해결 시간을 가졌다. 학 생들이 다양한 보드게임을 직접 해보며 수학 이 두려운 대상이 아닌 재밌고 친숙한 것임 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학과 친해 지는 날〉은 큰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소감을 나누며 수학과 친해지 는 날을 마무리하였는데, 6학년 장지윤 학생

은"수학은 문제만 풀어야하는 지루하고 어 려운 과목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수학과 관 련된 보드게임을 직접 해보니 너무 즐거웠고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사라졌던 것 같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3학년 최예정 학생은 "보드게임을 통해 덧셈과 곱셈을 하 니 너무 재미있었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더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굳은 의

〈수학과 친해지는 날〉은 2학기에도 실시 할 예정인데, 2학기에는 더 다양하고 흥미있 는 주제를 가지고 〈수학과 친해지는 날〉을 운영한다고 하니 학생들의 즐거운 배움이 더 욱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신안=이덕주기자



완도교육청, 2023 다문화가정 학부모 연수

완도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완도군 스마트 치유센터에서 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 및 동반 자녀 30명을 대상으로 완도군가족센터와 협조 하여'2023. 다문화가정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 였다.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 사

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연수는 자 녀의 학교 생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모교 육과 더불어 원예치료를 통해 낯선 한국 땅에 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연수에서 '꿈 넘어 꿈을 찾아서(부모교 육)', '내 마음의 봄을 찾아서(원예치료)'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정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소통 의 문을 열고, 자녀교육을 하며 겪는 어려움을 듣고 서로 공감하면서 자녀를 위해 잊고 있었 던 학부모 자신의 꿈과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 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화순도서관. '자유학기제 연계 영화제작교실'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



화순도서관은 3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올해 2년째 운영하는 사업, 화순중 1학년 학생 대상

화순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 기제 연계 영화제작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

이 프로그램은 2022년 도서관 특화 사업으 로 최초로 진행하여 올해 2년째 운영하는 사 업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학생 참여형 수 업 지원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 개 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영화제작교실」은 지난해 12월 학교 수요 조사를 반영하여 개설하였으며, 영화 제작 전 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영화 시나리오 작 성, 연기,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촬영 및 편

집, 영화 시사회 등 모든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있도록 진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화순도서관장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제작하며, 타인과 소통 하는 힘을 기르고,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길 바 란다. "면서 "올해 학교와 연계하여 「나도 작 가」 프로그램,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 지원, 「그림책이랑 놀자」, 「독서·토론」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고3 인문학」 등 다양한 독서인문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화순=박순철기자

전남교육청, 교통안전지도 봉사자 운영 지원

전라남도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 교를 돕고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 학년도 신학기부터 교통안전지도 봉사자 운영 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등하굣길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등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해왔으나, 직장이 있는 워킹맘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휴 가를 내야 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컸다.

또한, 미참여 학부모의 소외감과 학급별 봉 사자 지정에 따른 담임교사 업무 부담 등의 부 작용도 발생했다. 학부모들의 자발적 지원으 로 봉사단원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 분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연중 3, 4차례 정도 의무 참여를 요구하는 등 운영상 여러 가



지 제한사항이 지적돼왔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학부모가 교통봉사지도 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93교에 대해 교통 안전지도 봉사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섰다. 교통안전지도 봉사자는 등교시간대에 1시간 정도 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행지 도. 신호통제 활동을 하며 소정의 활동비를 지 김재환기자 급 받는다.

함평교육청, 환경교육 일환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 실시

함평교육지원청은 환경교육의 일환인 '공생 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사전 탐사 활동으 로 함평 주변 영산강 도보 탐사 행사를 지난 11일에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도교육청 '공생 의 물길 영·산·강'릴레이 사업과 연계하여 내 고장 영산강 생태와 공생하는 노력을 하고 영 산강 수질 개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나주 죽산보에서 동강교를 지나 느 러지전망대까지 걷는 이 행사에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 함평군청 환경관리과 팀장 및 관 계자, 함평군 환경보존연합회 회장 및 관계자, 관내 초, 중 교감 및 교장, 교육청 직원 및 가족 등 교육공동체들이 참여하여 그 뜻을 함께 했

나주 죽산보에서 동강교 지나 느러지전망대까지 걷는 행사 개최



